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임현아
이메일	lha8170@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58

보 도 자 료

이만희는 왜 구속되었을까? 검열자료로 보는 반공영화

한국영상자료원 1955년~1970년 제작된 153건의 반공영화 검열자료 원문 컬렉션 공개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6월 29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 1955년부터 1970년 사이 제작된 반공영화 153편의 검열자료를 모은 "반공과 검열: 1955~1970" 컬렉션을 공개한다. 이 자료는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1954년~1997년 사이 한국영화 검열자료 컬렉션 약 4,000건 중 일부다. 153편의 검열자료는 총 9,038면에 달하며, 영화당 6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한다.

영상자료원은 지금까지 이만희, 유현목, 김기영, 김수용, 신상옥 등 한국영화사의 거장 5인의 검열서류를 공개해왔는데, 감독이 아닌 주제/장르에 따른 컬렉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자료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영화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의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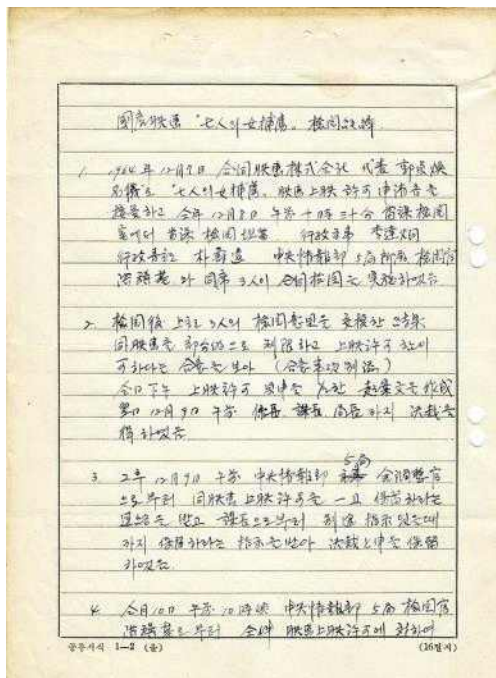
□ 냉전, 권위주의, 그리고 반공영화

"반공영화"는 말 그대로 반공의 주제 의식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전달하는 영화로, 분단 이후 좌우익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시점 탄생하여 한국전쟁을 거친 후, 특히 196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반공영화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영화, 군사영화, 간첩영화 등 소재 중심으로 불리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정부가 반공영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분단 소재 영화들이 반공영화라는 명칭으로 정착된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1963)으로 대표되는 한국전쟁 스펙타클 영화가 이 범주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1960년대 중후반에는 기존의 전쟁영화와 함께 국내 간첩 색출을 위한 정보원의 활약을 그린 국내 간첩물, 해외 간첩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내용의 국제간첩물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1965년 이후 한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007시리즈의 영향을 받았던 경향이었다. 또한 일본을 무대로 조총련 조직에 맞서는 정보원의 활동을 그린 영화들 역시 다수 제작되었는데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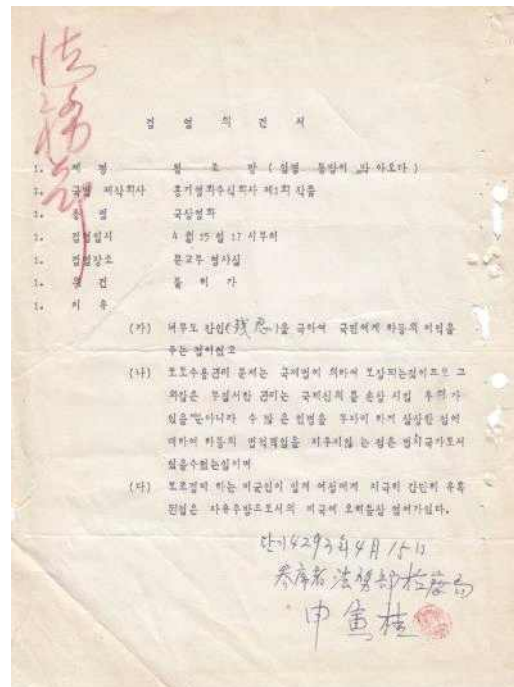
는 당시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일본의 풍경을 영화에 담는 소위 “왜색”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작사의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 중앙정보부가 영화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당시 군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영화화했던 반공영화는 그 성격상 검열의 혜택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냉전적 적대 구도 속에서 적을 상징하고 공격하기 위한 반공영화의 시도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위험을 현실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친정부적인 영화라는 인식과 다르게 반공영화 검열의 강도는 낮지 않았고, 검열과 관련된 사건들 역시 적지 않은 편이었으며 다른 영화에 비해 검열의 절차나 주체 역시 특수했다. 그 핵심에는 중앙정보부의 개입이 있었다. 모든 반공영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영화에서 중앙정보부가 본편 검열(상영 허가)에, 중요 영화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검열에 참여했다. 중앙정보부가 검열에 참여한 기록은 1961년 9월에 검열받은 <붉은 두목>(이영)에서부터 그 기록을 찾을 수 있고, 이후 상당수의 반공영화에 검열자로 참여하여 반공영화의 검열기준, 혹은 국가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의 검열기준을 수립해 나갔으며, 1968년 말부터는 국가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화뿐 아니라 모든 상업영화의 검열자로 참여했다.



▲ 국산영화 <7인의 여포로> 검열경위
(공보부 검열관 작성 서류)



▲ 영화 <철조망> 검열의견서

□ 검열의 특별한 사건들

반공영화 검열, 나아가 한국영화 검열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돌아온 여군)> 사건이다. <7인의 여포로>는 포로가 된 국군 간호장교 7명

을 호송하던 북한군이 중공군들이 여포로들을 겁탈하려 들자 중공군들과 맞서 싸워 그녀들을 구하고 남한에 귀순한다는 내용의 영화로, 감독 이만희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1965년 2월 투옥되었다. 감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이만희 감독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유는 1) 북괴의 국제적 지위 양양, 2) 반미감정 고취 3) 군사력의 취약화 책동 4) 북괴 찬양 등이었다. 이 영화의 검열서류는 당시 이 영화에 대한 행정조치의 과정과 경과, 영화계의 반응 등을 풍부히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적색 포로와 백색 포로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담아내었으나, 폭력의 잔인성, 양공주의 존재, 미군의 관리 소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재현했다는 이유로 상영 불허 명령을 받고 제작사의 대대적인 재편집 후 겨우 상영 허가를 받았던 조공하의 <철조망>(1960), 북한에서 귀순한 이수근의 일대기를 다루어 온 공보부 추천 우수 반공영화에까지 선정되었으나 이후 이수근이 위장 귀순한 것이 밝혀져 상영정지 처분 직전에 제작사가 스스로 검열을 철회한 김수용의 <고발>(1967), 내용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제작 신고가 두 차례 반려된 뒤 대규모 시나리오 수정으로 검열을 통과한 <나교>(이희중, 1968) 등 반공영화들을 둘러싼 다양한 검열의 사건 사고들이 이 컬렉션의 서류들을 통해 다수 확인할 수 있다.

□ 550쪽에 달하는 해제 자료

이번 반공과 검열 컬렉션의 서류 원문은 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의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통해 컬렉션에 대한 약 550쪽 분량의 해제 분석 글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컬렉션은 향후 한국 영화의 검열사 뿐 아니라, 한국영화사 나아가 대중문화의 역사 전반을 재구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공과 검열> 컬렉션 링크 안내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581&isLooked=true>

<표 1> 반공과 검열 컬렉션 153편 목록

번호	제명	제작년도	감독
1	원한의 성	1955	이만홍
2	나는 고발한다	1959	김묵
3	비극은 없다	1959	홍성기
4	철조망	1960	조금하
5	한많은 강	1960	우상학
6	붉은 두목	1961	이영
7	5인의 해병	1961	김기덕
8	굳빠이 존	1961	송국
9	붉은 장미는 지다	1961	이원초
10	육체는 슬프다	1961	이해랑
11	사랑과 죽음의 해협	1962	노필
12	서울로 가는 길	1962	이병일
13	두고온 산하	1962	이강천
14	눈물어린 발자국	1962	최인현
15	검은꽃잎이질때	1962	강범구
16	전쟁과 사랑	1962	김묵
17	전쟁과 노인	1962	임권택
18	싸우는 사자들	1962	김묵
19	비밀통로를 찾아라	1962	이용호
20	빼앗긴 일요일	1962	정일몽
21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	이만희
22	검은 장갑	1963	김성민
23	백마고지	1963	김수길
24	YMS 504의 수병	1963	이만희, 설봉
25	살아야 할 땅은 어디냐	1963	설봉
26	창살없는 감옥	1963	강범구
27	판문점	1963	김영식
28	빨간 마후라	1964	신상옥
29	내가 설땅은 어디냐	1964	이만희
30	포리호의 반란	1964	김종훈
31	황금벌판의 혈투	1964	김용덕
32	마도로스 박	1964	신경균
33	나는 속았다	1964	이강천
34	추격자	1964	이만희
35	국경아닌 국경선	1964	정진우
36	수색대	1964	정창화
37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라	1964	임원직
38	신화를 남긴 해병	1964	설봉
39	남과 북	1964	김기덕

40	인천상륙작전	1965	조금하
41	살인명령	1965	정창화
42	특전대	1965	편거영
43	순교자	1965	유현목
44	적진삼백리	1965	김봉환
45	용사는 살아있다	1965	김기덕
46	돌아온 여군	1965	이만희
47	여간첩 에리샤	1965	최경옥
48	흰벽 검은벽	1965	심우섭
49	적선지대	1965	이한욱
50	성난 독수리	1965	김기
51	피어린 구월산	1965	최무룡
52	너를 노리고 있다	1965	이신명
53	죽은 자와 산 자	1965	이강천
54	북에 고한다	1965	유죽량
55	비무장지대	1965	박상호
56	남북천리	1965	이강천
57	귀신잡는 해병	1965	김응천
58	전장과 여교사	1965	임권택
59	국제간첩	1965	장일호
60	한많은 대동강	1965	최인현
61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	1966	김기영
62	잃은 자와 찾은 자	1966	고영남
63	군번없는 용사	1966	이만희
64	간첩작전	1966	문여송
65	9인의 귀순병	1966	성낙훈
66	8240 K.L.O	1966	정진우
67	최후전선 백팔십리	1966	임원직
68	망향	1966	김수용
69	제76 포로수용소	1966	이한욱
70	무적자	1966	권영순
71	대탈출	1966	이한욱
72	국제금괴사건	1966	장일호
73	맹호작전	1966	김묵,설봉, 박호태
74	비밀첩보대	1966	권혁진
75	스파이 제오전선	1966	김시현
76	잘 있거라 일본땅	1966	김수용
77	탈출 십칠시(탈출 17시)	1966	임원직
78	스타베리 김	1966	고영남
79	순간은 영원히	1966	정창화
80	에스 오 에스 홍콩(SOS 홍콩)	1966	최경옥
81	영호작전(제로작전)	1966	설봉
82	임진강	1967	이한욱

83	방콕의 하리마오	1967	이만희
84	냉과 열	1967	이만희, 김 순식
85	장렬 509 대전차대	1967	김동학
86	남남서로 직행하라	1967	장일호
87	고발	1967	김수용
88	여자 베트남 18호	1967	강범구
89	얼룩무늬의 사나이	1967	이만희
90	해방동이	1967	박상호
91	돌무지	1967	정창화
92	싸리골의 신화	1967	이만희
93	모정의 비밀	1967	정창화
94	연합전선	1967	이혁수
95	암살자 063	1968	강중환
96	밀명(密命)	1968	임원식
97	나교(裸橋)	1968	이희중
98	대좌의 아들	1968	이강천
99	제삼지대	1968	최무룡
100	똥똥이의 모험	1968	김영식
101	칼막스의 제자들	1968	강범구
102	어떤 눈망울	1968	이강천
103	카인의 후예	1968	유현목
104	바람같은 사나이	1968	임권택
105	악몽	1968	유현목
106	심판	1968	고영남
107	심야의 비명	1968	심우섭
108	몽녀(夢女)	1968	임권택
109	공포의 18일	1968	조해원
110	내가 반역자냐	1968	강범구
111	성난 대지	1968	김기덕
112	황혼의부르스	1968	장일호
113	여로	1968	이만희
114	동경특파원	1968	김수용
115	흑점(속 제3지대)	1968	최무룡
116	암살자	1969	이만희
117	영시의 부르스 (0시의 부르스)	1969	전우열
118	사화산	1969	고영남
119	고원	1969	이성구
120	오인의 사형수(5인의 사형수)	1969	강민호
121	잠바 큐(Q)	1969	고영남
122	아편꽃	1969	권영순
123	미행자	1969	전우열
124	나도 인간이 되련다	1969	유현목
125	상해탈출	1969	임권택

126	요절복통 일망타진	1969	심우섭
127	이백오십조(250조)	1969	장일호
128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1969	고영남
129	지하실의 7인	1969	이성구
130	추격자	1969	김수용
131	결사대작전	1969	고영남
132	육군 김일병	1969	신상옥
133	동경의 왼손잡이	1969	최인현
134	제7의 사나이	1969	박근태
135	124군 부대	1969	김기덕
136	동경의 무정가	1969	최영철
137	국경의 밤	1969	정진우
138	그림자	1970	전우열
139	굿바이 동경	1970	최인현
140	원한의 팔도사나이	1970	편거영
141	분노	1970	조문진
142	엑스포(EXPO) 칠십 동경작전	1970	최인현
143	그 여자를 쫓아라	1970	임권택
144	동경을 울린 사나이	1970	박춘배, 최인현
145	젊은 아들의 마지막 노래	1970	조금하
146	모반	1970	박찬
147	황금70홍콩작전	1970	최인현
148	암흑가의 25시	1970	김효천
149	명동노신사	1970	김효천
150	심야의 방문객	1970	심우섭
151	특공대와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70	설태호
152	고보이 강의 다리	1970	이만희
153	삼호탈출	1970	최인현